

질식이나 압박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다. 운송수단에 의한 손상에 의한 사망과 익사는 2세에서 정점을 이루었고 질식이나 압박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1세 미만에서 가장 많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 경제적 요인과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분석한 결과 비의도성, 의도성 손상 모두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지가 박탈 지역 일수록, 부모의 연령이 10대일 수록 손상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소아, 특히 미취학 아동에 있어서 손상에 의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달단계가 다른 각 연령별로 주로 발생하는 손상이 다르고 대비책도 달라짐에 대해 인지도를 높이는 교육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SPM-165

경제위기와 피할 수 있는 사망률

Economic crisis and avoidable mortality in Korea

윤태호¹⁾, 황인경¹⁾, 정백근²⁾

(1)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2)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은 보건의료체계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사용되어져 왔다. 미국의 루스테인(Rustein) 등은 의료서비스와 예방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결과지표로 "피할 수 있는 사망"의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홀랜드(Holland) 등은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피할 수 있는 사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은 보건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 피할 수 없는 사망률보다 더 빨리 감소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의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어떻게 작동되어 왔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2-2002년까지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각 년도별 남성과 여성의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측정은 홀랜드 분류법을 적용하였으며, 치료가능한 질병군과 예방가능한 질병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상인구집단은 사망원인통계 원자료에 1999년과 2001년 각각 영유아 확장신고자료와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생아사망자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통계량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5-64세로 하였다. 사망원인분류는 1992-1994년은 ICD-9에, 1995년 이후는 ICD-10에 근거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랐으며, 사망률은 1992년 주민등록인구를 표준인구로 한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적용하였다.

결과: 전체 사망률에서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1992년 26.9%에서 2002년 24.8%로 2.1% 포인트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 1992년 30.0%에서 2002년 27.3%로 2.7% 포인트 감소하였다. 남성의 경우,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2년에서 2002년까지 계속 감소하였으나, 경제위기 직후에는 정체상태에 있

다가 2000년 이후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경제위기 직후에 정체상태에 있다가 2000년 이후로 다시 급격히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이는데, 경제위기 직후에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과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모두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2000년 이후로는 이전의 감소 패턴을 따르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는 1992년에서 2002년까지의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망률과 피할 수 있는 사망률 모두 남성과 여성에서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위기 직후에는 피할 수 없는 사망률 뿐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사망률역시 정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뚜렷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을 줄이는데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KSPM-168

대학병원 류마티스 질환 환자의 보완대체의학 이용과 그 결정요인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use and its determining factors among an university hospital patients with rheumatic disorder in Korea

윤태형¹⁾, 한동운^{1),2)}, 문옥륜³⁾

(1) 한양대학교 보건의료연구소,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적: 만성 질환치료에서의 정체성, 화학약품의 오남용, 일부 질환의 근본치료법 부재 등의 현대의학의 한계점은 전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 연구는 만성질환인 류마티스 질환 환자에서 보완대체의학의 이용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방법: 200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한 대학병원 류마티스 병원을 방문한 류마티스 환자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82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93.3%였다.

결과: 응답자의 86.3%가 여성이었다. 류마티스 질환 환자의 59.3%(95% CI; 52.1-66.2%)가 보완대체의학을 사용하였다. 보완대체의학 이용 결정 요인 분석에서는 질병이환기간이 1년 증가하면 보완대체의학 이용 가능성은 0.92(95%CI=0.86-0.99)배로 낮아지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대체의학 이용 가능성이 4.60(95%CI=1.11-19.35)배로 높았다.

결론: 류마티스질환자의 60%에서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있고 신체장애를 동반하거나 질병이환 초기에 더 많이 이용을 한다. 류마티스질환자 관리에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환자교육이 진단 초기에 필요하다.